

쓸데없는 동료애

(군중심리)

우리는 때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들이 옷을 사니까 따라서 사 입기도 하고 남들이 무슨 일을 한다니까 별 생각 없이 “유행인가 보다” 라며 그것을 따라 해보기도 한다.

어떤 영화가 히트를 쳤다고 하면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잠시 시험 걱정은 팽개쳐둔 채 극장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몇 시간을 기다리며 서 있기도 한다. 이 정도면 그냥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학교 다닐 때 운동권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의 주장에는 별로 공감을 갖지도 못 하면서 ‘얼떨결에 따라 나갔다가’ 나중에는 되레 더 흥분하여 격렬한 반정부 데모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은 최루탄에 혼비백산(魂飛魄散) 흩어져 버렸지만 그 중 일부는 경찰서에까지 연행되어 반성문을 쓰고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쉽게 나올 수 있었던 딱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주동자 급이 아니라는 것 때문이었다. 즉 그들은 애초의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데모대 안에서 발생한 군중심리(群衆心理)라는 독특한 심리적 퇴행으로 비롯된 “일시적 분노 때문에 그리하였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페니켈(Otto Fenichel)은 군중심리를 죄책감에 대한 방어의 일종이라고 하였다. 즉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으나 초자아의 힘에 의해 겨우 억제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아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라며 안도감과 동료애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죄책감, 또는 초자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이들은 동질의 그룹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 혼자서는 어떤 일을 행함에 주저하고 미안해하며 때로 죄책감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을 보며 “만약 전체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는 군중심리의 핵이 되고 개인으로서의 도저히 행할 수도 없는 원초적인 파괴 행위까지도 벌이게 된다.

동료들의 시선 때문에 길거리에 밀려나온 반정부 시위대의 학생은 맨 처음에는 “제발 데모하지 마라”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어느 순간에 도망가는 것이 동료들에게 들키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체면이 설까?” 하는 궁리를 한다.

그렇지만 그리하는 사이 “죽여라!”, “독재 정권 타도하라!”하는 구호와 “와”하는 함성에 휩싸이며 순식간에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는 단번에 시위대의 한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질풍노도와 같이 시위대의 선봉이 되어 거리를 질주한다.

이때까지 정상 성인이었던 그는 시위대의 일부가 되면서 흥분, 충동성, 정서적 퇴행, 심지어는 인격의 붕괴까지를 경험하게 된다.

지하철 파행 운행에 항의하던 시민은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분풀이를 할 요량으로 사무실을 찾는다. 그러다가 같은 처지에 빠져서 화가 난 여러 사람들과 합세하는 순간 군중심리의 마술에 걸려든다. 평소에는 화가 나도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몹시 흥분하고 발길질을 해대며 기물을 파괴하는 퇴행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을 한다.

야구장에서 몰래 소주를 마신 몇몇 관중이 샷대질을 하다가 집단 패싸움을 한다. 그들의 신분은 대개 그럴 것 같지 않은 회사원, 대학생 등이다. 이들은 군중 속에서 일시적으로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맹수로의 퇴행(退行)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중심리는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큰 사고를 유발한다.

한 번은 서울의 지하철이 운행 도중 멈추어 버렸을 때 분노로 들끓기 시작한 승객들을 의식한 운전기사가 냅다 줄행랑을 쳐버린 일이 있다. 책임감의 측면에서는 뺑 점짜리였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도 구했고(?) 그날 이후 감방에 들어가서 후회할 몇몇 사람과 그 가족들의 운명까지 구체해 준 셈이다. 간간히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우리나라 지하철의 독특한 문화에 잘 숙달되어 적절하게 발휘한 기지(奇智)가 아니었나 싶다.